

작곡가 삶 통해 클래식과 친해지기

조현영 아트앤소울 대표 '클래식은 처음이라' 발간 바흐·쇼팽 등 스토리텔링... 유튜브 QR코드 삽입 광주일보에 '조현영의 클래식, 영화를 만나다' 연재

독일에서 오랫동안 공부했던 피아니스트 조현영 아트앤소울(Art&Soul) 대표가 무대 위 연주자 아닌, 다른 방식으로 클래식 팬들을 만나기 시작한 건 '조현영의 피아노 토크'가 그 출발이었다. 광주에 클래식 감상실에서 시작된 이 강의는 조 씨의 피아노 연주와 함께 다채로운 음악 이야기가 어우러져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후 강연, 원고 집필과 팟캐스트 운영 등을 통해 클래식을 소개해온 조 씨는 다양한 주제로 책도 꾸준히 출간했다. '사람이 음악을 만들고, 음악이 사람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클래식 음악의 매력에 눈을 떠 아름다운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활동해온 결과다. 현재는 광주일보에 '조현영의 클래식, 영화를 만나다'를 연재하며 대중들에게 친숙한 영화 속에 흐르는 클래식 음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기도 하다.

어렵게 느껴지는 클래식과 친해지는 방법은 여러가지다. 그 중에서도 곡을 직접 만든 작곡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의 삶과 함께 음악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사람의 이야기는 언제나 흥미로운 법이니, 유명 작곡가들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마음을 건드리는 곡들을 또 만나게 된다.

'오늘의 기본과 매일의 클래식', '피아니

스트 엄마의 음악 도시 기행' 등을 펴낸 조 씨의 새 책 '클래식은 처음이라'가 가볍게 시작해서 들을수록 빠져드는 클래식 교양 수업(카시오페아)은 작곡가들의 이야기로 풀어가는, 클래식 초보자들을 위한 친절한 안내서다.

강의, 연주 등을 통해 많은 이들을 만난 조 씨는 클래식을 듣고는 싶는데, 어떤 음악을, 어떤 방식으로 들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그에 대한 답으로 책을 쓰기 시작했다.

조 씨는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 쇼팽, 슈만, 리스트, 차이콥스키, 말러, 드뷔시, 피아졸라 등 모두 10명의 작곡가를 초대해 그들의 삶과 그들이 만들어낸 위대한 음악에 대해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펼쳐 나간다. 음악가이자 한 명의 인간으로서 시대를 뛰어넘는 그 사람만의 고유한 가치를 갖고 있고, 클래식 역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들이기도 하다.

각 작곡가를 소개하는 저자의 시선은 그



모차르트

들을 수식하는 한 줄의 제목에 잘 나타나 있다. '성실, 일상을 소중하게-바흐', '부재, 음악으로 수양하여 일궈낸 인간 승리-베토벤', '사랑, 머리가 아닌 심장으로-리스트', '독심, 언젠가는 나의 시대가 올 것이다-말러', '한없이 용감하게 거침없이 자유로웠던 파리지앵-드뷔시', '불안, 영감의 원천-차이콥스키' 등 작곡가의 삶과 음악세계를 관통하는 제목들이다.

책은 클래식에 입문하는 이들을 위한 친절함이 돋보인다. 본문에서 언급된 클래식 곡들을 바로 감상할 수 있도록 유튜브 링크 주소를 QR코드로 만들어 삽입했으며 음악가들의 삶을 7-9분 내외의 강의로 정리한



리스트

내용도 QR코드로 제공한다.

무엇보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 중 '밤의 여왕 아리아' 등 전문 클래식 음악가의 시선으로 엄선한 150여곡은 초보자들을 위한 근사한 '플레이 리스트'다.

독일 쾰른 국립음대에서 피아노 전공 실기 전문연주자과정, 라이프치히 국립음대에서 최고전문연주자과정 학위를 취득한 저자는 네이버 오디오클럽과 팟캐스트에서 '조현영의 올 어바웃 클래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시립교향악단 월간지 'SPO', 매거진 '톱클래식' 등에도 글을 연재하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칠석 고싸움놀이 발전방향 심포지엄 23일 남구 고싸움놀이 전수관

코로나19 이후 고싸움놀이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이 열린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23일 오후 2시 고싸움놀이 전수교육관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제33호 광주 칠석 고싸움놀이의 계승발전과 축제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사)광주칠석고싸움놀이보존회가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고싸움놀이보존회 기획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용연 서영대학교 교수의 주제로 3가지 주제 발표 및 종합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는 표인주 전남대 교수로 '고싸움놀이의 전승과 활성화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김하림 조선대 교수는 '아시아 공동체 문화와 고싸움놀이의 세계화 방향'에 대해 이야기 할 예정이며, 박종찬 광주대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고싸움놀이 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집중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한양명 안동대 교수와 김준영 광주시청 문화관광체육국장, 변지현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장, 박진현 광주일보 문화부 선임기자, 차재웅 충청축제 및 명랑대첩축제 총감독, 김재철 광주전남연구원 수석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22일 DJ센터서 광주관광발전 포럼

광주관광재단은 광주 관광 분야 민간산학 협의회 구축을 위한 '광주관광발전포럼'을 오는 22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관광분야 기관, 업계, 학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다.

광주관광발전포럼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관광협업, 관광브랜드, 콘텐츠개발, 예술관광, MICE산업 등 5개 분과로 구성된 민간산학 관광분야 협의회로 분과위원회별 '여행하고 싶은 도시 광주'만의 과제, 정책, 목표 발굴을 위해 상시 회의를 개최하고 광주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협력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광주관광발전포럼은 22일 출범식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오는 7월과 11월 광주 관광 활성화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광주 관광산업의 전망에 대해 논의 할 예정이며 올해 민간산학 협의회 과제를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발전과 관련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해인사 팔만대장경 770여년만에 일반인에 첫 공개

매주 주말 두차례 홈페이지 예약

해인사가 지난 19일부터 국보이자 세계 기록·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판과 그 보고(寶庫) 장경판전을 일반에 공개했다.

고려 고종 때 대장경판이 조성된 후 770여년, 강화도에서 해인사로 옮겨져 보관을 이어온 지 620여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해인사는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을 통해 주말마다 오전, 오후 하루 두 차례씩 일반 국민에게 팔만대장경이 보관된 법보전을 공개한다.

1회 탐방객 수는 코로나19 방역과 안전 등을 고려해 20명으로 정해졌고, 휴대전화와 라이터 소지는 제한된다. 팔만대장경 보존·보호 등을 위해 내부 촬영은 엄격히 제한된다.

19일 오전 탐방은 해인사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을 한 시민 15명에게만 허락됐

다. 탐방은 해인사 일주문에서 시작돼 유추·견성 스님에게 사찰과 대장경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법보전으로 이동해 대장경을 둘러보는 순서로 진행됐다.

탐방을 앞두고 법보전 앞에서 스님이 관람 안내 사항과 내부 설명을 하자 해인사를 찾은 다른 관광객도 함께 경청했다.

경비 업무를 하는 사찰 관계자가 법보전 자물쇠를 열자 '팔만대장경 탐방 참가자'라고 적힌 명찰을 목에 건 탐방객이 두 손을 모으며 내부로 들어갔다.

내부 탐방이 시작되자 스님이 팔만대장경 역사, 건물 구조 등 상세한 설명을 이어갔다. 탐방객은 15분간 내부를 둘러보고 법보전 입구에서 기념 촬영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쳤다.

/연합뉴스



팔만대장경 탐방 참가자들이 20일 오전 경남 합천군 해인사 법보전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해인사는 지난 19일부터 하루 두 차례 일반 국민에게 팔만대장경이 있는 법보전을 공개했다. 이는 고려 고종 대장경판이 조성된 후 770여년 만에 첫 공개다.

대한사랑·세계한단학회 '국제학술문화제'

역사문화운동 단체인 (사)대한사랑(이사장 박석재)과 세계한단학회(회장 허철부)가 공동주최하는 '2021국제학술문화제'가 21일부터 25일까지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잃어버린 大韓의 역사와 문화를 바로 세울 때'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문화제는 학문과 이론적 접근을 통해 고대 이래 우리 역사의 진면목을 밝히려는 시도에서 기획됐다.

행사는 21일 오후1시 개막식과 기조강연 및 공연 등으로 시작된다.

24일까지는 서울 백범기념관기념관에서 국내외 역사와 인문학계, 문화계 학자들의 연구내용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된다. 국경영토사 분과, 상해임정역사관 분과 (22일), 한국고대사복원 분과, 국제분과, 천부경 분과 (23일), 환단고기 분과로 영역을 나눠 관련 연구내용의 발표 및 토론이 이뤄진다.

특히 24일에는 대한사랑 상임고문인 안경전 STB상생방송 이사장이 '천부경(天符經)과 홍익인간'이란 제목으로 특강하는 순서도 마련돼 있다. 마지막 날 25일에는 서울 당산동의 대한사랑 서울세미나실로 장소를 옮겨 대학원생과 교사 등 우리 역사문화학을 연구하는 일반시민들의 주제발표 및 토론이 진행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하시고 전하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